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of Fathers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기현

Dept. of Child Study and Welfare, WooSuk University
Prof. : Ki Hyun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arenting stress of fathers who have preschooler. At first, a causal model constructed, including the parenting stres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ternal self-esteem and parenting efficacy as parameters. Based on the change of parenting stress, self-esteem and parenting efficacy according to various variables pertinent to fathers, the causal effect of various variables effecting on the paternal parenting stress is analyzed. The SPSS PC program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where fully exploited were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standard deviations, Cronbach α , one-way analysis(ANOVA), path analysi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into 3 parts, in conclusion: 1) The younger a father is, the higher paternal self-esteem becomes. Paternal self-esteem trend was there, for a father who is a member of large family, and for a father whose education level is high, and for a father whose occupation is professional. Regarding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 father shows confidence when he has more income, more educated and

less children. 2) The variable analysis effecting on the parenting stress due to the paternal environment shows that a father feels more stress when his income is less and his spouse is working. The sub-factor analysis on the parenting stress shows that 'typical stress due to the parenting' increases when his income is less and his spouse is working, and 'pressures pertaining to the parental role and distress' increases for a father with less income, working spouse, less educated and non-professional job. Further 'guilty to the parenting by others' shows higher for a father with less income and a working spouse. 3) The path analysis, which were performed to check the causality of the parenting stress due to various variables, shows that the self-esteem and the parenting efficacy are significant factors directly effecting on the paternal parenting stress, and the job-satisfaction and marriage-satisfaction are significantly effecting on the parenting stres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이 논문은 1998년도 우석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아동의 성장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환경으로서 부모의 양육환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부모의 양육환경중에서도 주로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아동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보다 많이 행해져왔다.

사회가 보다 복잡해지면서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하고 가족원의 육구도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오늘날의 부모역할은 어머니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며 또한 과거에 일상적으로 수행해 왔던 것과는 달리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는 부모 모두가 느끼는 문제이지만 자녀양육을 어머니 혼자만의 역할로 보며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보호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직접적 자녀양육 참여와 모-자관계의 지지여부에 대한 효과 및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양육환경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다시말해서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실제적 시간은 적지만 어느정도의 질적 보충을 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와의 협력자(co-parent)로서 자녀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와 같이 다원적인 사회에서 아동의 다양한 영역발달에 아버지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현대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참여는 새롭게 정립되어야만 하는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특히 현대산업사회의 급속한 경제적 변화와 취업여성의 급증, 핵가족 구조하에서는 자녀양육의 책임을 다른 가족원의 도움없이 부모자신의 힘만으로 수행해야 함에 따라 자녀양육에 따른 부모의 책임은 증가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게 되므로써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를 그 어느때보다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불만족스러운 자녀양육으로 인해 전체적 부모자녀관계에 까지 직접적인 나쁜 영향을 미치며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가족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게 증대되어감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유아기 애착형성과정에서 중요한 대상은 어머니이지만 아버지도 양육능력이 있음을 주장한 Schaffer 등의 연구(1964)를 시작으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연구결과들을 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동의 인지발달을 강화하며(Radin, 1981),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직접 참여했을때는 인내심, 이해력, 사회적 도덕적 성숙을 지닌 성인으로 발달하며, 아버지가 모-자관계를 지지하고 정서적 표현력이 풍부한 경우 이런 아버지의 아들이 훨씬 더 긍정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상호작용 패턴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Biller, 1993). 또한 Parke(1981)는 아버지는 역할 모델로써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유형화과정에 영향을 주며 이때 아버지가 보여주는 따뜻함과 보살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Lamb(1986)은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의 양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Cmic과 Greenberg(1990)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부모역할수행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요생활사건 경험보다 더 주요한 스트레스 근원으로서 아동문제와 부모의 정신건강 그리고 가족기능을 더욱 잘 예언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와 아이들의 행복한 삶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Abidin, 1992 ; Cmic & Greenberg, 1990).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와 자녀양육시의 스트레스는 자녀의 여러 발달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자녀양육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기 위한 노력에 비해 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상의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이며 또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밝혀 보고자한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아버지를 위한 올바른 자녀양육지침과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양육 스트레스의 개념 및 구성요인

인간은 성장, 발달의 과정을 통해 유사한 변화를 경험하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다시말해서 스트레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으로 인간의 정상적 발달과정과 가족생활은 필연적으로 변화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Laster, 1981). Abidin(1992)은 부모역할수행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로 개념화하였으며 부모가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으로 보았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나 부모역할 수행시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Webster-Stratton, 1988). 가족생활의 발달적 맥락에서의 양육스트레스란 구체적으로 자녀양육시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체계가 직면하는 발달과정속에서 어느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으며(고성혜, 1994), 양육스트레스의 구성요인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어머니의 부모역할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디스트레스, 그리고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김기현, 강희경, 1977)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을 보면 그 연구결과도 많지 않을뿐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증과 관련이 있고(Gelfand, Teti & Fox, 1992), 빈곤과 관계가 있으며(Webster-Stratton, 1990), 또는 양육스트레스는 집중력 부족이나 과잉행동장애(Fischer, 1990), 만성적 질병(Hauenstein, 1990)과 심한 자폐증을 지낸 아동의 부모에게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umas, Wolf, Fismam & Culligan, 1991).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장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거나 또는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

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정상적인 가정을 대상으로 일반화시키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행해진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극히 소수일 뿐만 아니라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대부분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 실시상의 단점을 보완한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을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현대산업사회의 급속한 경제체제의 변화와 확대가족의 붕괴로 인해 자녀양육의 책임이 어머니 혼자만의 힘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부부공동참여 및 책임이 요구되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은 간과하는 전통이 지배적이었으며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인 일상적인 양육에 참여하는 효율적인 양육자가 될 능력이 있고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는 자녀의 여러 발달측면에 있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자녀양육시에 아버지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양육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자기 가치에 대한 판단과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기가치에 대한 평가는 문화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있게 여기는 정도와 개인의 행동이 개인이 지닌 가치기준과 일치하는 정도에 달려있다(Bandura, 1982).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목표이다. 자아를 반영된 평가로 보고 있는 Sullivan은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면서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의미있는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갖게 되

면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며, 부정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는다고 보았다. 특히 Pable(1965)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애정이 강할수록 자녀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졌고 이들의 자아존중감 성취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고 어머니는 간접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wan과 Cowan(1993)의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양육에 더 긍정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Shereshefsky와 Yarrow(1973)는 부모 역할지각의 중요 설명요인은 부모의 자신감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관계가 있음을 밝힌다. 다시 말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버지의 경우 능동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며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무력감이나 좌절을 수반하고 이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부모 역할 지각이나 자녀양육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아버지의 부모역량감과 자녀양육

부모됨과 부모역할 즉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부모역량감은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Johnston & Mash, 1989), 이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Bandura(1982)는 자기역량감 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은 기대, 사고와 신념, 동기유발과 흥미, 심상 및 상징등의 인지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된다고 하였다. 다시말해서 인간의 행동은 자기 역량에 대한 기대와 같은 인지적 과정을 매개로하여 변화된다고 보고, 이때 자기 역량감이 강할수록 문제상황이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며, 반대로 자기 역량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수록 문제상황을 극복하기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해 버린다고 하였다.

Adams와 Davis는 자녀양육에서 아버지 자신의

지식이나 노력을 중요한 책임으로 지각하는 아버지들이 부모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자녀의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하였으며 Parke와 Sawin은 자녀양육상의 역할지각은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허선자, 1992).

또한 Belsky와 Vondra(1989)는 결혼생활의 만족은 부모역량감과 같은 심리적 안녕의 증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부모역할기술을 좋아지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Mondall과 Tyler(1981)는 아동의 놀이상황과 문제해결상황에서 부모의 행동과 심리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판단할수록 아동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아동을 능력과 잠재력이 많은 존재로 보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주며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기대는 자녀양육태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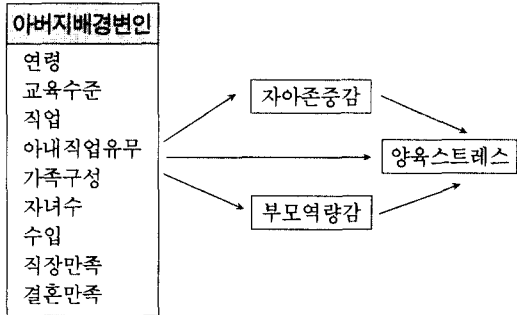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아버지 관련변인들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리라 보고 <그림 1>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모형에 입각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부모역량감,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를 알아본다.
- ②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라 자아존중감, 부모



〈그림 1〉 연구모형

- 역량감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 ③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 ④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알아본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남·북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편성을 갖는 일반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아버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적용할 예비 측정도구를 제작한 후에 1997년 11월에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조사는 1998년 3월에 전남·북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아버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669부를 연구의 분석자료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3. 측정도구의 구성

1) 양육스트레스 척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33세 이하	165	24.7
	34 - 37	342	51.1
	38세 이상	162	24.2
교육수준	고졸이하	210	31.4
	대졸	387	57.8
	대학원이상	72	10.8
직업	단순, 비숙련	126	18.8
	사무, 기술직	396	59.2
	전문, 관리직	147	22.0
아내직업	없음	417	62.3
	있음	252	37.7
수입	120만원이하	198	29.6
	130-200미만	309	46.2
	200이상	162	24.2
자녀수	1명	108	16.1
	2명	489	73.1
	3명이상	72	10.8
가족구성	핵가족	567	84.8
	대가족	102	15.2
직업만족	불만족인편	159	23.8
	보통인편	405	60.5
	만족인편	105	15.6
결혼만족	불만족인편	360	53.8
	보통인편	81	12.1
	만족인편	228	34.1

Parental Distress요인과 Crnic(1990)등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그리고 Mann(1990)의 Maternal Guilt Scale(MGS)등을 참고로 하고 실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우리문화에 맞게 개발된 김기현등(1997)에 의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였다. 원래의 측정도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것이며,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12문항), 부모 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8문항)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

〈표 2〉 변인별 도구의 문항수, 내적 신뢰도 계수와 가능한 점수범위

변인	측정변인	문항수	가능한 점수범위	α
양육스트레스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2	12 ~ 60	.79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12	12 ~ 60	.78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8	8 ~ 40	.7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9	9 ~ 45	.66
부모역량	부모 역량	9	9 ~ 45	.74

다. 그 결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값이 .88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 I-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79, 요인 II-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78, 요인 III-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7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2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자아존중감 척도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토대로 작성한 허선자(1992)의 질문지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수정 제작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의 기능, 행동 또는 구체적인 특징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단일차원으로 개념화하여 포괄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된 척도이며 총 9개의 문항으로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66으로 나타났다.

3) 부모역량감 척도

부모됨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아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Gibad-Wallston(1977)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PSCS)을 토대로 하여 박성옥(1992)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PSCS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변인인 부모역량을 나타내는 9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별 도구의 문항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 α)와 가능한 점수범위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4. 자료분석

본 자료의 분석은 SPSS/PC+ Program에 의해 수행되었다. 측정도구 작성을 위하여 문항분석과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를 구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1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부모역량감과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고 연구문제 2와 3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하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test를 하였으며, 연구문제4,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자아존중감, 부모역량감, 양육스트레스의 수준

〈표 3〉에 의하면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3.38, 부모역량감은 5점 만점에 3.44로 중간점

〈표 3〉 자아존중감, 부모역량감, 양육스트레스의 수준

구분	문항수	평균(5점만점)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9	24.34(3.38)	3.04
부모역량감	9	24.77(3.44)	3.57
양육스트레스	32	67.86(2.65)	13.15

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는 5점만점에 2.65로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모역량감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부모역량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보면 아버지의 연령이 $F<.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버지의 나이가 적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월평균소득이 많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직업 유무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구성 형태가 핵가족인 경우와 확대가족인 경우에 따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보다는 대가족의 경우에 아버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직업의 종류에 따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비숙련직보다는 전문,관리직의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역량감을 보면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부모역량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모역량감

독립변인	종속변인	자 아 존 중 감				부 모 역 량 감					
		M	SD	t	scheffe	M	SD	t	scheffe		
연 령	33세 이하	2.12	.79	1.94*		2.01	.76	.43			
	38세 이상	1.96	.74			1.98	.84				
수 입	120만원이하	1.92	.81	-3.19***		1.92	.81	-4.64***			
	200만원이상	2.18	.72			2.29	.68				
아내직업	없음	2.05	.74	.55		2.02	.76	-1.60			
	있음	2.00	.76			2.19	.66				
가족구성	핵가족	2.04	.75	-2.07*		2.04	.76	-1.34			
	대가족	2.21	.73			2.15	.75				
교육수준	고졸이하	1.97	.71	7.86***	a	1.91	.82	6.02***	a		
	대졸	2.06	.75			b	2.11			.75	b
	대학원이상	2.37	.75			b	2.20			.57	b
직 업	단순, 비숙련	1.95	.72	5.92**	a	2.02	.80	1.75			
	사무, 기술	2.03	.75			a	2.03			.78	
	전문, 관리직	2.24	.74			b	2.16			.68	
자녀수	1명	1.97	.73	1.54		2.20	.75	3.87*	a		
	2명	2.09	.75			2.05	.77				
	3명이상	2.00	.76			1.87	.73			b	

ab : 서로 다른 기호가 표시된 집단은 $p<.05$ 수준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p<.05$ ** $p<.01$ *** $p<.001$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부모역량감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이 많을수록 부모역량감이 높게 나타났다. 아내 직업 유무나 가족구성형태에 따른 부모역량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역량감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역량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종류에 따른 부모역량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수에 따른 아버지의 부모역량감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수가 적은 경우(1명인 경우) 부모역량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수준

〈표 5〉는 배경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

스 및 각 하위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양육스트레스의 총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보면 아버지의 월평균 수입과 아내의 직업유무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입이 적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아내의 직업이 있는 경우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은 아내의 직업유무와 자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가 직업이 있는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은 수입, 아내직업유무, 교육수준, 직업의 종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입이 낮을수록, 아내가 직업이 있는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단순, 비숙련 직 일수록 아버지의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독립변인		종속변인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총 stress		
		M	SD	t	M	SD	t	M	SD	t	M	SD	t			
연령	33세 이하	1.96	.76	.48	1.94	.79	-.91	1.88	.74	-.98	2.00	.83	.65			
	38세이상	1.92	.64		2.01	.69		1.96	.68		1.94	.76				
수입	120만원이하	2.03	.75	1.83	2.14	.73	4.20***	2.04	.77	2.08*	2.12	.79	4.04***			
	200만원이상	1.8	.72		1.82	.64		1.88	.67		1.80	.66				
아내직업	없음	1.90	.68	4.60**	1.90	.66	3.02*	1.87	.65	3.40**	1.90	.72	4.50***			
	있음	2.07	.73		2.23	.80		2.15	.77		2.23	.90				
가족구성	핵가족	1.98	.71	.54	1.97	.70	.37	1.93	.70	.20	1.99	.77	.94			
	대가족	2.03	.74		1.90	.75		2.03	.73		2.00	.79				
교육수준	고졸이하	1.92	.69	.19	2.06	.71	2.71*	1.87	.68	1.90	2.01	.78	.16			
	대졸	2.00	.74		1.93	.72		1.99	.73		1.99	.79				
	대학원이상	2.08	.65		1.86	.61		1.90	.60		1.95	.64				
직업	단순, 비숙련	1.97	.70	.17	2.12	.70	4.79**	1.89	.63	1.88	2.07	.77	1.45			
	사무, 기술	1.98	.72		1.96	.71		1.99	.72		2.00	.76				
	전문, 관리직	2.02	.72		1.85	.67		1.86	.71		1.91	.77				
자녀수	1명	1.91	.78	2.81*	1.85	.69	2.30	1.87	.81	.68	1.90	.80	2.44			
	2명	1.98	.71		1.97	.72		1.95	.69		1.98	.77				
	3명이상	2.16	.62		2.08	.64		2.00	.65		2.16	.69				

* $p < .05$ ** $p < .01$ *** $p < .001$

스트레스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요인은 수입, 아내의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입이 낮을수록, 그리고 아내직업이 있는 경우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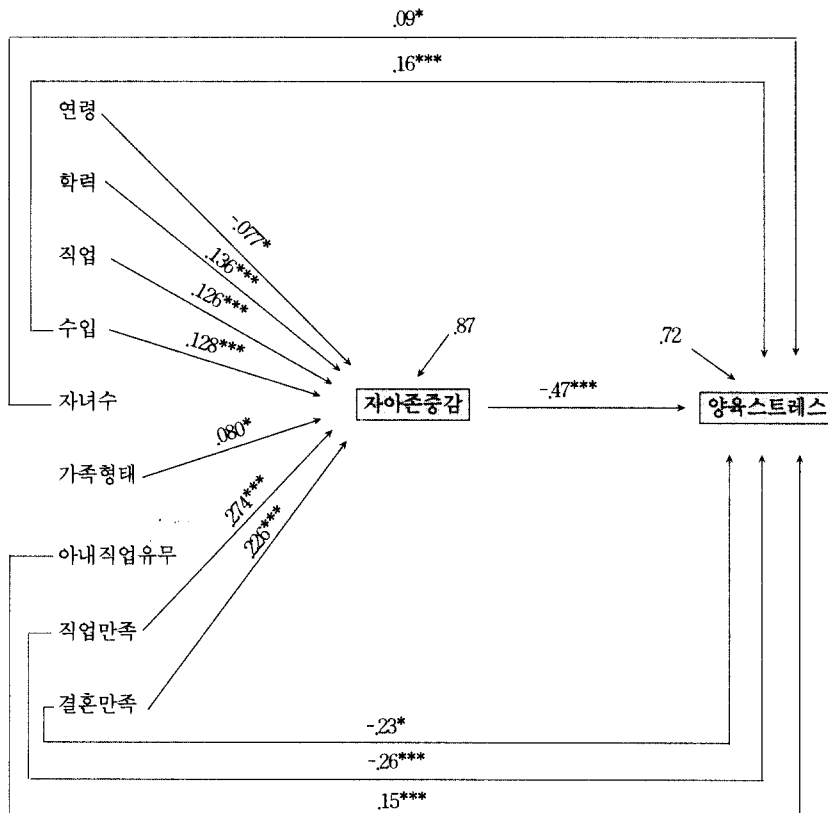
4.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아버지 관련변인과 자아존중감, 부모역량감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수입, 가족구성, 자녀수, 아내의 직업유무, 직업만족, 결혼만족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과 부모역량감을 매개 변수로 하여 인과모형을 구성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결과 .05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만을 인과모형에 도식화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β 계수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배경변인과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결혼만족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과 부모역량감을 매개 변수로 하여 인과모형을 구성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결과 .05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만을 인과모형에 도식화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β 계수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배경변인과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beta = -.077$), 학력($\beta = .136$), 직업($\beta = .126$), 수입($\beta = .128$), 가족구성형태($\beta = .080$), 직업만족($\beta = .274$), 결혼만족($\beta = .226$) 변인이었다.

즉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전문직이나 관리직인 경우, 수입이 많을수록



<그림 2> 아버지의 배경변인과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인과모형

가족구성유형이 대가족인 경우,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53 %였다.

또한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 수입, 가족구성, 직업만족, 결혼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전문직이나 관리직인 경우, 수입이 많을수록, 가족구성형태가 대가족인 경우,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이것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각 배경변인들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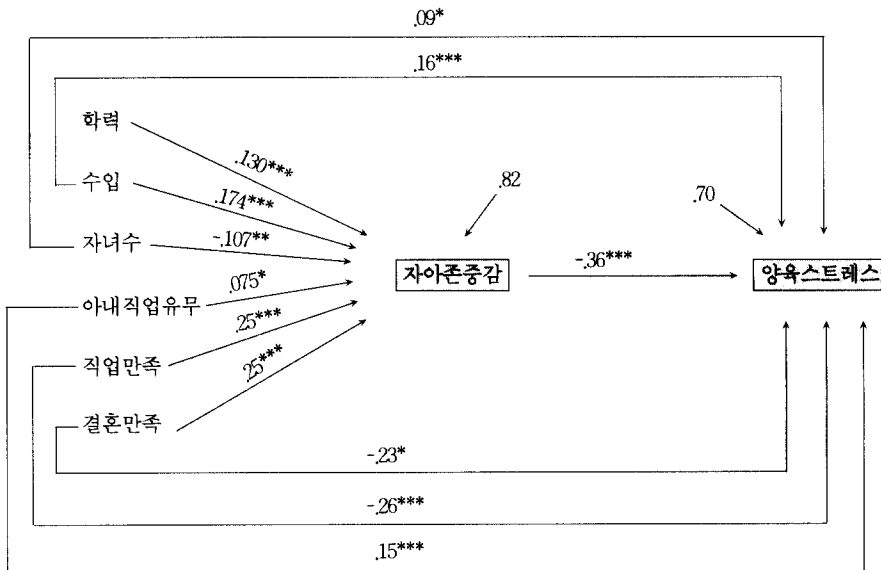
아버지의 배경변인과 부모역량감과 양육스트레스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부모역량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력($\beta = .130$), 수입($\beta = .174$), 자녀수($\beta = -.107$), 아내직업유무($\beta = .075$), 직업만족($\beta = .25$), 결혼만족($\beta = .25$) 변인이었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아내의 직업이 있는 경우, 직업과 결혼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부모역량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 수입, 자녀수, 아내의 직업유무, 직업만족, 결혼만족도는 부모역량감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표 6>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주요관련 변인들간의 관계분할표

변인	원인적 관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연령	.227		.227
학력	.228		.228
직업	.223		.223
수입	.394	.16	.234
자녀수	.09	.09	
가족구성	.224		.224
아내직업유무	.15	.15	
직업만족	-.497	-.26	-.237
결혼만족	-.462	-.23	-.232
자아존중감	-.47	-.47	



<그림 3> 아버지의 배경변인과 부모역량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인과모형

〈표 7〉 부모역량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주요변인들간의 관계분할표

변인	원인적 관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학력	.130		.130
수입	.298	.16	.138
자녀수	.09	.09	
아내직업유무	.309	.15	.159
직업만족	-.415	-.26	-.155
결혼만족	-.384	-.23	-.154
부모역량감	-.36	-.36	

적을수록, 아내의 직업이 있는 경우, 직업과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부모역량감이 높아지며 이것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27%였다.

각 배경 변인들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부모역량감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표 7〉과 같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효과를 나타낸 〈표 6〉, 〈표 7〉을 통해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총인과효과 크기를 비교해보면 직업만족도가 가장 크며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부모역량감, 수입, 학력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Barnett & Baruch (1989)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직업만족도가 높은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며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지각하는 자녀양육태도를 갖는다는 Urman-Klein (1983)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아버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부모역할은 부부관계의 질이 중심이라고 본 Bigner(1979)와 Belsky(198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의 직접효과의 크기를 보면 자아존중감(.47)과 부모역량감(.3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더 긍정적으로 참여한다는 Cowan과 Cowan(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지각과 양육행동간에 관계가 있다고 본 Levy-Shiffer Israelashvili(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보다 상세하게 각 변인들간의 인과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매우 작지만 자아존중감이 매개 변수로 작용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에도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아주 작으나(.16) 자아존중감과 부모역량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므로써 양육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력, 수입, 직업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의 실시로 아버지들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중요성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것이 크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아버지들이라 할지라도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상쇄효과가 나타나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보다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아버지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자녀양육을 비롯한 아버지의 심리적 복지에 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대가정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요구되는 시

대적 변화에 따라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고 매개변인을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부모역량감으로 하여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이며 이들 변인간의 상호인과관계를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전·남북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아버지 669명으로 하였으며 아버지 배경변인과 양육스트레스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부모역량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통계처리는 t-test, 일원변량분석, 경로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수준은 3.38로 중간이상이었고, 아버지의 부모역량감은 3.44로 중간이상이었으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2.65로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부모역량감의 차이를 알아보기위해 t-test 및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보면 연령, 월평균 수입, 가족구성형태, 교육수준, 직업종류변인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량감은 월평균 수입, 교육수준, 자녀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본 결과 총수입, 아내직업유무에 따라 총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모형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의 크기를 보면 자아존중감(.47)과 부모역량감(.36)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인과효과는 직업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부모역량감, 수입, 학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직업만족도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직업관련 변수가 자녀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을 알 수있었다. 따라

서 직장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아울러 보다 제도적인 지원 체계로써 직장에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실시나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등의 융통성있는 근무여건의 마련과 직장환경의 개선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있어 지원효과를 가져오게 하므로써 자녀양육 환경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리라 본다.

또한 결혼만족도 역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접효과를 보면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능동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며 부모역할 지각이나 역할수행에 있어 자신감을 갖게 되므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효과를 가져오는 결과가 될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자녀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그리고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와 아울러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향상 또는 건전한 자아상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합적인 모형을 통한 추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1) 강남미(1996), 부성전환스트레스에 관한 이론적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2)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2), 21-37.

- 3)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4) 김영미(1990).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5) 김인숙(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6) 김태련·박광규·이경숙(1992). 자폐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적응능력 지각과의 관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3(1), 106-116.
- 7) 김희조(1994).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우울증상, 부부관계 만족도, 양육스트레스가 품행장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8) 박성옥(1992). 3세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9) 박해미(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0) 배인숙(1993). 자폐아동의 적응행동수준과 그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1) 백경임·강희경(1995).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타아 실태와 타아에 대한 죄책감. *대한가정학회지*, 33(6), 281-293.
- 12) 백양희·최희선(1996) 농촌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4(1), 33-47
- 13) 송주미(1992).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자녀행동 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4)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5) 안지연(1992).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일 연구-정상아 가족과 자폐아 가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6) 윤수영(1992). 자폐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7) 이귀원(1996). 통합여부에 따른 학령전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8) 장병옥(1986).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9) 장세진(1992).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사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20) 전경아(1991). 도시부부의 스트레스와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서울시 부부를 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1) 한미현·유안진(1995).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 22)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23) Abidin,R.R.(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24) Abidin,R.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 25)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26) Belsky, J. (1986). Infant Day Care :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6(5) 1-7.
- 27) Belsky, J., Vondra, J.(1989). Lessons from Child Abuse: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In D. Cicchetti & V. Carlson(E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8) Belsky, J. (1992). Consequence of Child Care for Children's Development :A Deconstructionist View. *The National Symposium on Child Care in 1990s*, pp. 83-94.
- 29) Berkey, K, M., & Hanson, S, M, H. (1991). Pocket Guide to Famil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t. Louis : Mosby-Year Book.
- 30) Biller, H. B.(1993). Fathers and Families: Paternal

- Factors in Child Development, Auburn House.
- 31) Broman, C. L.(1991). Gender, Work-Family Rol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Blac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509-520.
- 32) Cowan, P.A., & Cowan, C. P.(1993). Marital Quality and Gender Differences in Parent-Child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31-939.
- 33) Cm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34) Gelfand, D.M. & Teti, D.M.,(1992). Source of Parenting Stress for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of Infa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3), 262-272.
- 35) Johnston, C., & Mash, E. 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36) Lamb, M. E. (1986).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 New York: Wiley, 3-57.
- 37) Laster, J. F. (1981).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r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73(3), 17-19.
- 38) Menaghan, E. G. (1983). Marital Stress and Family Transitions : A Pan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371-386.
- 39) Menaghan, E. G., & Parcel, T. L. (1981). Parental Employment and Family Life : Research in the 1980s. In A. Booth(Ed.), *Contemporary Families: Looking Forward, Looking Back*(pp.361-380). Minneaplis : NCFR.
- 40) Mann, M, B., & Thornbe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 41) Schaffer, H,P & Emerson, P, E(1964). The Development of Social Attachments in Infancy.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9
- 42) Webster-Stratton, C.(1988).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 of Child Deviance: Roles of Parent and Child Behaviors and Par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909-915.